



「삼국유사」에 실린 孝에 관해서
- 빈녀양모, 지은의 효성에 대해서

A devotion of blind mother by a poor daughter, Ji-eun's filial piety

저자 (Authors) 손달례
 Sohn Dal-Lye

출처 (Source)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2009.5, 125-127 (3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북아시아문화학회](#)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90110>

APA Style 손달례 (2009). 「삼국유사」에 실린 孝에 관해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25-12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9 13:4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에 실린 효에 관해서

- 빈녀양모, 지은의 효성에 대해서 -

손 달 례(부경대학교)

『삼국유사』효선(孝善)편의 마지막인 다섯째 편이 ‘빈녀양모’조인데 그 주인공이 知恩이며 빈녀이다. 똑같은 내용이 『삼국사기』에도 효성을 다한 인물 지은으로 열전에 올라있다. 효성을 다한 주체가 여성이며 본인에게 더욱 주목이 되었던 이유였고, 신라 하대 때 애기로써 효를 실천하는데 있어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는 기록을 따라서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영웅적인 용기와 결단력이 두드러진다.

사건의 내용은, 효종왕이 남산 포석정에서 놀이를 한다고 하니 문객들이 별뿔 떨어지듯 달려왔는데, 두 사람만이 유독 늦게 왔다. 효종왕이 그 까닭을 묻자, 말하기를, “분황사 동쪽마을에 20세 전후의 여자가 눈먼 어머니를 끌어안고 서로 통곡하고 있기에 동네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말해주기를, ‘이 처녀는 집이 가난하여 밥을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기근이 들어서 구걸만으로는 밥을 얻기가 어려워지자 남의 집에서 품을 팔아(다른 해설은 남의 종으로 자기 몸을 팔아) 30석의 곡식을 얻은 후 부잣집에 맡겨두고, 일을 하다가 날이 저물면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 드리고 함께 자고 새벽이면 부잣집으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며칠이 되자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거친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더니, 요사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가슴을 찌르는 듯 하여 마음이 편치 못함은 무슨 까닭이냐고 하였습니다. 지은이 그 사실을 말하자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그제야 어머니의 배만 부르게 봉양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도를 하지 못하였음을 탄식하여 서로 붙들고 우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를 보느라고 늦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효종왕이 그 말을 듣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곡식 100곡을 보내주자 효종왕의 부모 또한 옷 한 벌을 보냈으며, 효종왕의 무리 1000명도 벼 1000석을 거두어서 보

내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임금에게 알려지자 이때 진성왕이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군사를 보내어 그 집을 호위하여 도둑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그 마을을 정표하여 효양리(孝養里)라고 하였다. 후에 모녀는 그 집을 희사하여 절을 삼고 양존사(兩尊寺)라고 이름하였다.(최호역해, 흥신문화사)

왕은 그 집에 조세를 면제하였고, 효종왕을 가상히 여겨 헌강왕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동국통감』 권 11, 신라기, 진성왕 11년)라고 기록된 곳도 있다.

지은의 나이를 32세라고 적은 곳이 있는데 어머니를 봉양하느라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남의 고용살이와 구걸로써 봉양하다가 부잣집에 몸을 팔아 백미 10석을 받고 온종일 노역하고 저물어 밥을 가지고 돌아와 봉양했다라고 해설한 책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조선시대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이 『삼국사기』의 내용을 옮겨 적은 듯이 보이면서도 그것을 경주지역의 ‘인물’인 효자 서술부분을 채택함으로써 사찰 연기와는 상관없는 표창관계로만 서술을 끝내고 있다. 이는 그 시대에 조선 초기 유교적 이념의 강화와 함께, 이미 관심의 방향이 변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당나라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황제의 덕화에 아름다움을 돌리었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삼국사기』에는 당나라 왕실에 표문을 올려 그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내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중국황제의 덕화를 거론하고 있음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지은의 효행에 대한 표창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흥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지은이 눈먼 모친에 대한 봉

양을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사태에 직면했고 고대 사회에서 가난이 닦혔을 때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을 팔아 남의 집의 노비가 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교의 효가 국가적으로 크게 권장되었다고 한다. 경덕왕 때 신라는 『孝經』을 널리 펴서 효를 도덕의 근본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추구했다고 밝혀져 있다. 이런 사실이 효녀 지은의 효행도 같은 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팔 경우는 지은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 평민 신분의 여인이 스스로 몸을 팔아 母를 봉양했다는 사실을 통해 평민들에게까지도 효의 사상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당시 국가에서 효를 이념화한 이유가 농민들로 하여금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가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효종량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효종량은 진골 신분으로 일찍부터 유교경전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효종량의 행동은 『효경』을 읽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에서 의로운 행위이며, 진성왕은 그 당시 국가의 위기 상태에 직면해서 지은의 효행사실을 민심을 평정시키는 절호의 소재로 적극 활용했을 것이다.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비로 전락한 여인을 구출하고 『효양리』란 이름까지 내려서 지은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더구나 여왕은 지은이의 효행을 당나라에 표문을 통해 알리기도 하였는데 왕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은 한 사람의 필부라도 효행을 실천하였을 때 이를 국사에 기록하고 표창하였던 당나라의 예를 따르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은에게 내려준 곡식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적들이 수도인 경주에까지 횡행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진성왕 때 신라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음을 알 수 있다. 곡식과 군인까지 보낸 것은 효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국가의 모순을 덮어두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본다.

『삼국유사』 효선편은 지은의 효성을 불교에까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연선사는 지은이 국가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유교적 효행의 실천에 있기 보다는 불교적인 효에 의한 것으로 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신라인들은 孝와 善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2009.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 『삼국유사』 일연·최호 역 해. 홍신문화사. 1990
3. 한국 고대의 효사상 연구: 『삼국사기』, 『삼국유사』, 『금석문』을 중심으로, 이대석사학위논문 1998
4. 효윤리체계에 의한 『삼국유사』의 효행설화연구 성산효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A devotion of blind mother by a poor daughter, Ji-eun's filial piety.

Sohn, Dal-Lye(Pukyong National Univ.)

I would like to search through a summary of the above discussion by review of a story, a poor daughter and mother in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Samkugyusa)*. The daughter in the story was also known as Ji-eun in *the History of Three Kingdoms(Samkugsagi)* who served her blind mother with great devotion and thus, her act was appraised highly and listed in the series of biographies the book. Along with her great devotion, her sexuality worked another reason to be listed because the author tried to emphasize filial piety regardless of male and female's role.

History books compiled in Chosun dynasty authorize *History of Three Kingdoms(Samkugsagi)* and admitted its contents and thus, no buddhist related facts and moreover Hyojong as Hwarang(Hyojong rang) were included. Ji-eun's filial piety was known accidentally by Hyojongrang. He heard about her and her blind mother, and gave financial support. That was informed to King Jingsung and then King rewarded her with house and security guards. However, the King's reward suggests political disorder at that time as well. She(female King) awarded Ji-eun a big prize with intention to hide the political chaos.

According to the Samkugusa, Ji-eun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which is very suggestive of true filial piety. It means not only supporting parents physically, but also pondering their mind considerably.